

1920-30年代 江南農村 商品經濟의 發展

朴正鉉*

<목 차>

머 리 말

1. 農村 商品經濟 發展의 原因
2. 農村 商品經濟의 發展
3. 農村 商品化의 趨勢

맺 음 말

머 리 말

상품경제의 발전은 1920-30년대 중국 농촌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농촌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중국 농촌은 토지소유 관계에서 농촌 사회경제 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다. 중국 농촌의 상품경제 발전에 대한 문제는 중국 사회성격 문제와 맞물려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이 문제는 論者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상품화는 소농경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필립 황(Philip C.C. Huang)은 강남 농촌의 상품화를 소농경제의 지속을 위한 조건으로 보았고, 중국의 연구자들은 농촌의 몰락을 강조하고 있다.¹⁾ 상당수 연구자들이 그 근거로 1930년 초 농촌의 실질적

* 광주대학교 강사.

1) 天野元之助의 飢饉의 상품생산론이나 필립 황의 小農經濟論은 농촌의 상품화는 단순 소상품 생산으로 자급자족을 보충하기 위한 생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吳承明은 근대 중국 농촌의 상품화율이 증가했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그것은 자본주의화가 아니라 반봉건적인 영세경영이 아직 우세를 점하는 近代封建主義의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했다(天野元之助, 『中國農業經濟論』, 上·中·下, 龍溪書舍, 1978; Philip C. C. Huang, *Peasant Economy and Social Change in North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許濂新·吳承明 主編, 『新民主主義

쇠퇴와 농촌상품화의 제한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 초 중국 농촌의 쇠퇴는 경제공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1935년 이후 농촌경제는 점차 회복되었다. 또 강남 농촌의 경우 상품화는 농가에서 自給한 뒤 남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생산이었고, 상품화도 일방적인 상품화가 아니라 생산물의 판매와 생활자료의 구입이라는 상호 교환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1920-30년대 강남 농촌에서는 상품경제가 폭넓게 발전했고 이것은 전통경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상품경제가 가장 발전했던 강남 농촌을 대상으로 1920-30년대 상품경제의 발전과 이것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대외무역의 증가로 인한 상품유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강남 농촌의 농산물 상품화와 생활자료 상품화 정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 1920-30년대 강남 농촌에서 상품경제의 확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려 한다.

1. 農村 商品經濟 發展의 原因

1) 상품유통구조의 변화

明代 이전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연경제 상태였으며²⁾ 상업은 자연경

革命時期的中國資本主義, 人民出版社, 1993.]. 반면 R. Myers · T. Rawski · L. Brandt · D. Faure 등은 중국 농촌 상품경제의 발전을 근대적인 발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Ramon H. Myers. "How Did the Modern Chinese Economy Develop?—A View Articl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0, no 3, 1991 ; Thomas G. Rawski. *Economic Growth in Prewar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David Faure. *The Rural Economy of Pre-Liberation China*.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Loren Brandt. *Commercialization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East-Central China, 1870-193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제를 보조하는 墟集貿易과 鹽鐵貿易 외에 도시의 소매상업과 사치품 판매무역이 발전했다. 도시의 상업은 통치계급을 비롯한 일부 계층의 소비품을 주로 취급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상업의 취급품목은 점차 民生用品 위주로 전환되었고 販路도 확대되어 신흥 상업도시들이 출현했으며 地域間·農工間의 상품교환이 상업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상품량이 확대되고 상업은 더욱 발전하여 전문화되었으며 商人會館이 곳곳에 건립되었다.³⁾ 그러나 明清代 상품경제의 발전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 상품경제는 지역적으로 蘇州·杭州·寧波 등 몇몇 도시 주변에서 제한적으로 발전했다. 상업은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유통상품의 내용면에서도 아편전쟁 전 중국에서 유통되었던 주요상품은 糧食이 40%, 棉布가 25%, 소금이 15%를 차지했고, 茶·絲·絲織品·棉花 등의 순서였다. 당시 유통은 양식과 경제작물·수공업품의 상호 교환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농촌의 양식판매량이 시장 크기의 기준이 되었다. 유통상품 가운데 糧食(지방 小市場의 農民間 교환은 포함하지 않음)은 약 2.45억 擔으로 생산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여기에 교환되지 않는 漕糧·丁賦 등을 제외하면 9%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품화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또 시장에 유통된 양식은 상품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급 뒤 남는 양식이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교환되었던 것은 糧食과 布의 교환이었다. 布는 이미 松江 등 10여 곳의 商品布 생산지구가 있었지만 이 곳의 생산량은 전체 유통량의 15%에 지나지 않았고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포는 織布農家에서 자급한 뒤 남은 布가 대부분이었다. 양식과 면포의 교역은 자연경제를 기초로 한 男耕女織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19세기 이전 중국은 자연경제가 여전히 주요한 지위를 차지했다.⁴⁾

2) 자연경제는 교환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생산자의 수요를 위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가리킨다(『經濟大辭典』(農業經濟卷), 農業出版社, 1983, p.66).

3) 許滌新·吳承明 主編, 『中國資本主義的萌芽』, 人民出版社, 1985, p.17.

아편전쟁 이후 중국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내의 상품 유통액이 크게 증가했다. 상품유통에서 아편전쟁 이전에는 糧食과 棉布(土布)가 42%·24%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936년의 통계에 의하면 공산품인 棉布와 棉紗가 1·2위를 차지하여 16.2%와 10.8%를 점했다. 반면 이전에 1위를 차지했던 양식은 桐油에 이어 4위로 6.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유통상품 가운데 공산품은 34%, 수공업품은 42%, 농산품은 24%를 차지했다.⁵⁾ 이것은 아편전쟁 전 양식을 기초로 布·소금을 주요 거래대상으로 한 상품구조와는 완전히 달랐다. 특히 沿海지역에서 상품구조의 변화가 많았다. 연안 항구에는 棉紗·면제품·석유·성냥 등 기계제 상품이 대량으로 수입되었으며 이것은 城鄉市場에도 대거 유입되었다.⁶⁾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상품 유통구조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공산품과 농산품·농산가공품의 가격은 통상항구에서 결정되었다. 농산물 가격은 원래 국내 시장가격에 지배되었으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시장 가격에 지배되었다.⁷⁾ 특히 수출상품 또는 해안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판매지와 국제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직접 생산자인 농민이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은 자신의 생산원가와 예상이윤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⁸⁾ 쌀의 경우 상해의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수입쌀이 증가하면서 수입쌀의 가격이 중국 쌀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밀과 면화도 1920년 이후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져 상해의 밀·면화 가격등락은 국제시장의 등락상황에 연동되어 국내시장은 가격결정력을 상실했다. 또 농산가공품인 茶가격은 런던에서 결정되었고, 絲가격은 파리(뒤에 뉴욕)에서 결정되었다.⁹⁾ 이 시기 茶와 絲는 수출보다 내수위주였으나 가격은 국

4) 許濂新·吳承明 主編, 『舊民主主義革命時期的中國資本主義』, 人民出版社, 1990, pp.24-25.

5) 許濂新·吳承明 主編, 앞의 책, 1993, p.228.

6) 潘君祥·沈祖煒 主編, 『近代中國國情透視』,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2, p.184.

7) 吳承明, 앞의 책, 1993, p.233.

8) 潘君祥·沈祖煒 主編, 앞의 책, p.29.

제시장에서 결정되었다.

2) 농촌 상품경제 발전의 원인

도시에서 상품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도 강남 농촌의 대부분은 자연경제의 단계에 있었다. 1908년 南京—上海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 無錫縣 禮社의 경우 開明地主가 매년 한 차례 정도 省에 들어가는 정도였고 농민 가운데 평생 도시를 한번도 구경 못한 사람이 90%가 넘었다. 더욱이 上海·南京·北京·天津 등을 가본 사람은 鎮 전체에서 2-3명에 불과했다고 할 정도로 농촌사회는 폐쇄되고 고립되어 있었다.¹⁰⁾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자본주의가 중국의 시장에 직접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지만 20세기 초반에도 중국 농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소비품은 거의 모두 토산품이었다. “일반 농민들은 土布를 입고 土産을 먹어, 洋貨는 많이 볼 수 없었고, 京貨나 廣貨도 진귀했다. 당시 철도가 처음 개통되어 鄉校에서 작은 풍금 한 대를 샀는데 鄉民이 다 투어 보러와서 문 앞이 막힐 정도였다”¹¹⁾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선진 지역이었던 강남사회조차 자연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 농촌에서 상품경제의 발전은 19세기 이후 대외무역의 발전으로 상품유통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이전 중국에서 농산품의 상품화는 대외무역의 盛衰에 상당부분 지배되었다. 대외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농산품의 수출은 양적·구조적으로 발전했다. 수출총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수출이 많지 않았던 桐油와 같은 물품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의 수출상품은 茶와 絲가 1894년 이전에는 총 수출액의 50% 이상

9) 許濂新·吳承明 主編, 앞의 책, 1993, pp.236-237.

10) 余霖, 「江南農村衰落的一個索引」, 『新創造』, 第2卷 第12期, 1932年 7月(陳翰生, 『解放前中國農村』 3, 展望出版社, 1984, p.162).

11) 余霖, 앞의 논문(陳翰生, 『解放前中國農村』 3, 展望出版社, 1984, p.163).

을 차지했으나 1929-1931년에는 겨우 3.6%와 12.1%를 차지했다. 대신 새로운 품종이 등장하여 1936년에는 桐油가 총 수출액에서 10.3%, 蛋品이 5.9%, 돼지 剛毛가 3.5%를 차지했으나 茶와 絲는 4.4%·5.2%로 낮아졌다.¹²⁾

농산물의 수출과 함께 수입은 더욱더 증가했다. 1924-29년 사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년 전에 비해 24%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평균 82.5% 증가했다.¹³⁾ 수입품은 洋布·石油·석탄이 3대 품목이었고 이외에 종이·담배 등이 소량으로 수입되었다.¹⁴⁾ 양포수입의 증가로 중국에서 土布의 비중은 1840년 99.54%에서 1936년 38.77%로 낮아졌고 土布의 상품화율은 1840년 52.76%에서 1936년 25.96%로 낮아졌다. 또 土布 가운데 상품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6년 10.06%에 지나지 않았다.¹⁵⁾ 洋紗·洋布의 대량 수입은 강남의 농촌지역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常熟의 토포는 원래 福建·廣東 지역에 판매되었으나 洋布가 성행하면서 토포의 판매가 날로 줄어 소농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松江에서는 洋布보다 土布가 우세했으나 토포의 비중이 이전보다 줄어들어 부업의 이익이 감소했다. 無錫·金匱 지역에서도 洋紗가 성행하고 土布의 판매가 정체되어 紡織이 쇠퇴했다.¹⁶⁾ 양포의 판매가 확대되고 土布의 판매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耕織結合의 경제적 안정성이 동요되고 상품경제의 비중이 높아졌다.

1910년대 후반 경공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자본주의가 연안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의 영향은 점차 강남농촌에 영향을 미쳤다. 자본주의 공업의 발전으로 농산물은 수출보다 내수에 주로 소비되었다. 따라서 농촌은 도시공업의 주요한 원료 공급지와 공산품의 시장이 되었다. 1920-30년대 강남 농촌에서 상품경제는 더욱 급속히 확대되었다. 철도의 개설, 도로의 건설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上海를 중심으로 한 도

12) 徐新吾, 「近代中國自然經濟加深分解與解體的過程」, 『中國經濟史研究』, 1988. 1, p.109.

13) 嚴中平,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 科學出版社, 1955, p.327.

14) 潘君祥·沈祖煒 主編, 앞의 책, p.199, p.201.

15) 許滌新·吳承明 主編, 앞의 책, 1990, p.319-325.

16) 馬敏·朱英, 『傳統與近代的二重變奏』, 巴蜀書社, 1993, p.7.

시의 상품경제가 점차 농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농촌에 화폐경제가 침입함에 따라 공업은 농촌에서 분리되어 도시로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도시와 농촌 사이에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해 생겨난 화폐관계는 종래의 농업을 변질시켰다. 이러한 농촌의 변화는 각 농촌이 처한 지리적·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었다.¹⁷⁾

근대 이전 농촌 부근의 市鎮에서는 농산품·수공업제품·일용잡화 등이 주로 거래되었으나 1920-30년대에는 공업제품·금속 등의 유통과 교환이 주를 이루었다. 洋紗·洋布·기름·설탕·성냥·유리·機器 등의 거래가 증가하여 鄉鎮시장에서 주요 지위를 차지했고 鄉鎮시장의 성쇠를 좌우했다.¹⁸⁾ 1920-30년대 중국 농산품 상품화의 발전은 비록 대외무역에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중국 국내시장의 발전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綿紡織·面粉·卷烟·蛋品加工·縲絲 등 중국 근대 공업의 발전은 농산물을 상품화시켰고 그와 상응하여 농산물 재배를 전문화시켰다.¹⁹⁾

근대적인 교통운수업의 발전도 농산물 상품화를 증대시켰다. 한 예로 靑浦縣 黃渡鎮 西南鄉은 南京-上海 철도상의 작은 역이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상해에 인접해 있어 상당히 일찍부터 자연경제가 파괴되었고 농작물의 종류도 바뀌었다.²⁰⁾ 또 근대 도시의 발전과 도시 금융산업의 발전도 농산물 상품화율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예는 無錫의 米市에서 찾을 수 있다. 강남지방 도시의 발전은 양식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1930년 上海의 인구는 이미 310만 명 내외에 달했으며 무석 근처 南通의 방직업, 紹興의 양조업도 양식을 필요로 하여 無錫의 양식유통량을 확대시켰다. 1910-20년대 無錫의 신식 금융업은 점차 구식 錢莊을 대체했고 糧食業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유지하여 막대한 자금으로 米市를 지원했다.

17) 滿鐵 上海事務所, 『江蘇省太倉縣農村實態調查報告書』(이후 上海滿鐵, 『~縣』으로 줄임), p.125.

18) 段本洛·單強, 『近代江南農村』, 江蘇人民出版社, 1994, p.222.

19) 潘君祥·沈祖煒 主編, 앞의 책, p.201.

20) 馮和法 編, 『中國農村經濟資料續編』上, 華世出版社, 1978, p.44.

1934년 無錫·中國銀行 등 10개 은행의 총 대출액은 1,640만 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糧食業에 대한 대출이 720만 원으로 43.9%를 차지했다.²¹⁾

외국 자본주의의 침입에 이은 대외무역의 증가, 시장의 발전으로 촉발된 자본주의의 발전은 강남의 농촌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근대적인 운수교통의 발전과 도시의 성장도 강남 농촌에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필수요인이었다.

2. 農村 商品經濟의 發展

1) 農産物의 商品化

농촌 상품경제의 발전은 농산물의 상품화 정도와 농가에서 생활자료를 구매하는 비율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증가했는데 1921년-1925년 사이 江蘇省 3개 지방에서 농산물의 62.13%를 판매하고 37.86%를 自家 소비하여 농산물의 상품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농산물 상품화의 증가는 농촌에서 자연경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²²⁾ 강남지방에서 농산물 상품화율은 각 지역의 주요 생산물, 부업의 비중,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달랐다. 같은 벼농사지대라 하더라도 無錫은 蠶桑이 주요한 상품작물이었고 嘉定·太倉은 면화가 주요 상품작물이었다. 無錫의 경우 1927년 조사에 의하면 縣 전체 120만 畝의 토지 가운데 水田이 60%이고 桑田이 30%, 원예는 10%였다. 桑田의 경우 이익이 다른 작물에 비해 3배에 달해 농민들은 경쟁적으로 蠶桑에 종사했다.²³⁾ 嘉定縣 지역

21) 王敏毅, 「無錫米市初探」, 『檔案與歷史』 1987年 1月.

22) 董廷之, 「近代中國農村經濟商品化的歷史命運」, 『復印報刊資料』, 經濟史, 1991. 11, p.90.

23) 『無錫年鑑』, 1930年, 農業, p.5.

에서는 면화가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嘉定縣은 전체 경지 가운데 棉花田이 51.24%였고 벼재배는 34.7%에 불과했다. 면화는 12.5%-25% 정도의 자급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上海에 매각되었다.²⁴⁾ 太倉縣의 경우 현 전체에서 棉花田은 70%, 논은 30%였다. 1937년 면화는 수확량의 62%를 판매했다.²⁵⁾ 상품작물인 면화의 상품화율이 통계수치상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면화의 自用 부분은 가내부업을 통해 상품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면화의 상품화율은 실제로는 이보다 높았다.²⁶⁾ 상품작물은 수익률이 높았으나 자연재해나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도 컸다. 따라서 상품작물을 재배한 농민 가운데 일부는 부농이나 지주로 상승하고 일부는 몰락하는 양극분해 현상이 일어났다. 강남의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낮았지만 상품화율이 높은 양식작물 가운데 하나가 밀이었다. 嘉定縣에서 1937년 생산한 밀 15만 석 가운데 47%인 7만 석을 상해에 판매했고 太倉縣에서는 1938년 생산한 밀 8.4만 석 가운데 71%인 6만 석을 上海·蘇州·無錫 등지에 판매했다.²⁷⁾

1930년대 糧食생산이 농작물 생산액의 70% 내외였고 농업 총생산액에서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 농촌에서 상품경제의 발전은 糧食 상품화율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²⁸⁾ 吳承明의 推計에 의하면 중국 양식의 상품화율은 1840년 10%, 1894년 15.8%, 1920년 22%, 1936년 30%였다.²⁹⁾ 상품작물의 재배지역에서는 양식을 자급하지 못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상품작물 재배의 증가는 거꾸로 양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강남의 주요 면화 재배지역인 嘉定縣의

24) 上海滿鐵, 『上海市 嘉定區』, pp.103-104.

25) 上海滿鐵, 『太倉縣』, p.109.

26) 南通 頭總廟村的 경우 면화의 상품화율은 55% 정도였지만 自用分은 전부 上紗·上布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이 가운데 99.6%를 판매하여 거의 100% 가까운 상품화율을 보였다(卞幸德, 『舊中國蘇南農家經濟研究』, 中央編譯出版社, 1994, p.189).

27) 上海滿鐵, 『嘉定縣』, pp.16-18 ; 『太倉縣』, pp.6-7.

28) 徐新吾, 앞의 논문, 『中國經濟史研究』, 1988. 1, p.108.

29) 吳承明, 『中國資本主義與國內市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p.272.

양식자급률은 22.5%에 불과해서 77.5%를 다른 지역에서 조달했다. 太倉縣의 경우 매년 소비량의 50% 가까이 되는 20萬石 내외를 崑山·常熟·上海 등 인근지역에서 구입했다. 반면 쌀 생산지였던 松江縣의 경우 매년 96만 석의 쌀을 생산하여 45만 석을 다른 지역에 판매하여 쌀의 상품화율은 47%나 되었다. 常熟縣에서도 해마다 쌀 생산량 250만 석의 20-30%를 판매했다. 따라서 상품작물 재배지역과 쌀 생산지역 사이의 移出과 移入을 통해서 쌀의 상품화율이 증가했다.³⁰⁾

강남 농촌에서 쌀의 상품화 증가는 농가가 상품경제에 깊숙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上海滿鐵 조사에서 쌀 주생산지인 松江의 경우 농업 총수입의 약 82%가 미곡 판매수입이었다.³¹⁾ 그러나 조사농가 52호 가운데 미곡을 완전히 자급하는 농가는 38%인 20호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62%의 농가는 어떤 형태로든 쌀을 구입했다.³²⁾ 특히 경작면적이 10畝 이하인 농가 가운데 상당수는 자급할 양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식량을 팔았다. 松江지역은 화폐지대가 성행하여 농가에서는 수확 후 쌀을 팔아서 현금으로 소작료를 납부하고 부채상환, 기타 家事費用을 지출하고 난 뒤 농한기에 부업을 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식량을 구입했다.³³⁾ 일부 궁핍한 농가에서는 자가소비에 충당하기 위해 남겨놓아야 할 쌀과 밀도 채무상환에 쫓겨 수확 후 전부 혹은 대부분을 팔고 봄의 春窮期가 되면 재차 시장에서 쌀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太倉의 많은 농가에서도 목격되었다.³⁴⁾ 또 다른 예로 浙江省 嘉興縣의 경우 영세농장이 지배적이고 벼농사를 위주로 하여 상품작물은 극히 적었으나 농산물 상품화의 경향으로 농민들은 쌀을 판매했다.³⁵⁾

30) 上海滿鐵, 『松江縣』, p.6 ; 『嘉定縣』, pp.17-19 ; 『常熟縣』, p.41 ; 『太倉縣』, p.6.

31) 上海滿鐵, 『上海市 松江縣』, p.177.

32) 上海滿鐵, 『上海市 松江縣』, p.180.

33) 曹幸德, 앞의 책, p.195.

34) 上海滿鐵, 『太倉縣』, p.109.

35) 劉端生, 『嘉興四三一二戶農業經營的研究』, 『中山文化教育館季刊』, 第4卷 第2期, 1937년(太平

농산물 상품화율은 경작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上海滿鐵, 『太倉縣』 附表 9에 의하면 경작면적 10무 이상의 농가에서 면화 총생산량의 76.66%를 생산했고 10무 이하의 농가에서는 23.34%만을 생산했다. 면화는 12-25%가 자급되었기 때문에 10무 이하의 농가는 自家 소비분을 제외한 소량만을 판매했고 대부분 부업이나 外出노동으로 현금수입을 보충했다. 따라서 상품작물의 상품화는 주로 10무 이상의 농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강남의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太倉에서 10무 이하의 농민은 상품작물 재배비율이 낮았는데 이것은 식량자급을 위해 벼농사를 짓고 남는 부분에 면화를 심었기 때문이다.³⁶⁾

이러한 예는 松江과 常熟에서도 나타났다. 滿鐵調查에 따르면 松江에서 10무 이하의 농가 34호 가운데 85%인 29호가 쌀을 판매했으며 10무 이상의 농가는 모두 쌀을 판매했다. 그 가운데 5무 이하의 농가는 모두 겸업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농업은 이들에게 자급식량의 조달 이외에 별로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는 모두 쌀을 판매했는데 松江의 쌀 상품화율은 평균 43.1%로 나타났다.³⁷⁾

常熟縣 조사에서는 1938년 조사 촌락의 쌀 총생산량 279.43石 가운데

<표 1> 江蘇 松江縣 농가별 쌀의 상품화율

		4.9무 이하	5-9.9무	10-14.9무	15무-19.9무	20무 이상	합계
戶數	생산	16戶	18	13	8	3	58
	판매	12戶	17	13	8	3	53
판매비율		26.4%	49.3	41.7	46.3	41.7	43.3
1호당 판매액		46.54원	159.21	184.51	329.75	622.33	191.87

자료출처 : 上海滿鐵, 《上海市 松江縣》, p.175.

洋問題調査會 編, 杉本俊朗 譯, 『中國農村問題』, 岩波書店, 1940, p.102).

36) 曹幸德, 앞의 책, p.203.

37) 上海滿鐵, 『上海市 松江縣』, p.175.

18.97%인 53石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37년 이전에는 수확이 이보다 2배 정도 되어 상품화율도 훨씬 높았다. 전체농가 38호 가운데 약 40%인 15호가 수확량의 평균 30.15%를 매각했다. 양식을 매각했던 15호 가운데 12호가 경영면적 6.9무 이상이었다(常熟縣 조사지역의 평균 경영면적은 5.28무). 즉 常熟에서도 농산물의 상품화는 촌락에서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서 이루어졌다.³⁸⁾ 강남 농촌에서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농산물 상품화를 통해 상품경제에 포섭되었고,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는 부업이나 노동력의 판매를 통해 상품경제에 포섭되었다.

1920-30년대 강남 농촌에서는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것은 상품작물의 재배가 증가하면서 상품작물 재배지역에서 양식이 부족해지자 상품작물의 상품화율뿐만 아니라 양식의 상품화율도 증가했다. 또 생활자료를 구매하기 위한 화폐의 필요성 때문에 농산물의 매매가 증가했다. 따라서 강남 농촌에서는 경영규모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농민들은 상품경제에 포섭되었다.

2) 농가 생활자료의 시장구매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증대되었던 것과 아울러 농가 생활자료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1920년대 강남 농촌에서는 농가 생활자료 가운데 53.4%는 자급에 의존했지만 46.6%는 시장에서 구매했다. 아래 「표 2」에 나타난 강남 3개 지방의 농가 상품화 정도를 보면 강남 3곳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평균 62.13%로 중국 전체 평균 52.6%보다 높았고, 생활자료 시장구매에서도 46.57%로 중국 평균 34.1%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江寧縣 太平門과 淳化門 지역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상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생활자료의 구매비중이 55.85%였고 식료의 구매비율도 44.35%였다.

38) 上海滿鐵, 『常熟縣』, 附表 10.

<표 2> 中國 各地 農家 商品化 정도(1921-1925)

지역	농산물 自用과 판매부분		농가생활자료 중 자급과 구매부분	
	自用	판매	자급	구매
中國 13·17곳 평균	47.4	52.6	65.9	34.1
中東部 평균	37.2	62.8	58.1	41.9
江蘇 江寧(淳化鎮)	26.3	73.7	46.2	53.8
江寧(太平門)	33.6	66.4	42.1	57.9
武進	53.7	46.3	72.0	28.0
3곳 평균	32.36	67.63	48.80	46.57

자료출처: 원자료는 J. L. Buck, *China Farm Economy*, 1930(東亞經濟調查局 譯, 『支那農家經濟研究』上, 東亞經濟調查局, 1935, pp.569-571).

1920년대 강남 농민들은 식량의 경우 거의 자급했지만 의복이나 器具 등은 95% 이상 시장에서 구매했다. 1922-25년 사이 江寧縣 淳化鎮의 경우 의복의 99.8%를 시장에서 구입했으며 江寧 太平門에서는 100%, 武進에서는 97.3%를 구입했다. 器具 設備도 江寧 太平門에서 98.4%, 武進에서 87.8%를 구입에 의존하여 일부 품목의 시장 의존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³⁹⁾ 농가경제의 상품화는 1930년대에 더욱 진전되어 “소비품 가운데 소비자가 생산하는 것은 총수의 1/3밖에 되지 않는다”⁴⁰⁾고 할 정도로 강남 지방은 시장에 상당히 의존했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해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크게 늘어나는 화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농민들은 도시로 나가 노동자가 되거나 농산물 판매를 늘리든지 아니면 부업을 통해 현금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상품화는 현금수입 비중의 증대로 나타났다. 현금수입의 비중은 농가경제의 시장성을 반영한다. 無錫의 경우 총수입에서 현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1%(1936)였고, 嘉定

39) J. L. Buck, *Chinese Farm Economy*, 1930(東亞經濟調查局 譯, 『支那農家經濟研究』下, p.570).

40) 費孝通, 『江村經濟』, 中華書局, 1987, p.209.

은 64.5%(1939), 常熟은 44.3%(1939), 松江은 45.6%(1939)로 1930년대 강남 농촌의 현금수입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⁴¹⁾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시기 상품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식량도 구입에 의존했으며 쌀 재배지역에서도 빈농의 경우 자급용 쌀을 판매하고, 봄에 값싼 저질의 식량을 구입하여 생활했다.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물건의 상당수를 직접 소비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일상 필수품을 자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강남지방에는 생산물의 판매와 농민의 소비를 위한 광범위한 유통체제가 필요했다.⁴²⁾ 당시 농민들은 市鎮의 상점과 거래했으나 市鎮의 상점들은 다시 縣城·大鎮의 상업자본과 연결되었으며 이들 초급·중급시장은 다시 上海의 시장과 연결되었다.⁴³⁾ 즉 1930년대 강남의 시장은 上海를 중심으로 농촌에 이르는 시장망이 형성되어 자본주의적 유통법칙의 지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⁴⁴⁾

상품경제 발전으로 생활자료는 이미 거의 대부분 상품화되어 음식·의복 등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젓가락까지 시장에서 구입하였다.⁴⁵⁾ 1935년 江蘇省 江寧縣 4개 鄉 103개 촌락의 시장구매품을 보면 식용유와 소금은 100%, 기타 잡화는 62.1%, 布는 58.3%, 쌀·채소·고기도 각각 39.8%·29.1%·25.2%를 구입하고 밀은 59.2%, 쌀은 41.7%를 판매했다.⁴⁶⁾ 농민들이 시장에서 구매한 것은 생활자료뿐만 아니라 공업제품도 포함되었다. 위의 「표 3」은 錫縣의 曹庄과 邵巷 2개 촌 조사 결과인데 광석 라디오·재봉틀은 1949년 이전 한 대도 없었지만 시계·보온병·손전등과 같은 공업제품의 구입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30년대 강남 농촌은 정

41) 吳柏均, 「無錫區域農村經濟結構的實證分析(1920-1949)」, 『中國經濟史研究』, 1991. 3, p.101.

42) 費孝通, 앞의 책, p.209.

43) 費孝通, 앞의 책, p.223.

44) 小島淑男, 「地主制と農民層分解」, 野澤豊·田中正俊 編, 『講座中國近現代史』, 3, 東京大學出版部, 1978, p.32.

45) 曹幸穗, 앞의 책, p.208.

46) 李文治·章有義 編, 『中國農業史資料』, 第3卷, 三聯書店, 1957, p.311.

<표 3> 無錫縣 2개 촌 농가 공업생산품 소유현황표

연도	시계	보은병	손전등
1929	7	1	6
1936	13	21	26
1948	20	91	65

자료출처 : 中央研究院社會科學研究所, 『無錫縣農村經濟調查報告』, 陳翰生, 『解放前中國農村』 3, 展望出版社, 1984, p.327.

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상품경제 단계에 진입하여 시장경제가 직접·간접적으로 농민의 생활을 지배했다.

3. 農村商品化의 趨勢

黃宗智는 강남 소농의 상품화가 榨取型(소작료의 형태)·生存型이었지 상호교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⁴⁷⁾ 또 丁長淸은 농민경제의 상품성은 어떤 지방을 막론하고 50% 이하로 기본적으로 반자급상태였으며 중국의 상품생산은 자본주의 생산이 아닌 소상품생산으로 농촌은 아직 자연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했다.⁴⁸⁾ 그러나 1920-30년대 강남 농촌의 상품생산은 소상품 생산이 아니라 시장생산이었다. 제2장에서 살펴 보았다시피 농민들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업생산물을 구매했으며 농촌은 공업의 주요한 소비처 구실을 했다. 1930년대 강남의 공업은 대부분 製絲·紡績·製粉 등 농산물 가공업⁴⁹⁾으로 인

47) Philip C. C. Huang, 앞의 책, p.108.

48) 丁長淸, 『關於中國近代農村商品經濟發展的幾個問題』, 『復印報刊資料』, 經濟史, 1985年 第9期, pp.157-160.

49) 강소성 3대 공업은 綿紡織 纈絲 而粉業이 50.9%로 절대우세를 차지했다(顧紀瑞, 『江蘇近代資本主義工業發展的特點』, 『復印報刊資料』, 經濟史, 1984年 第5期, p.108).

<표 4> 1933년 中國 공업의 비중

	노동자수	생산액
총계	644,229명	1,425,777원
생산자료 생산공업	36%	27.3%
소비자료 생산공업	64%	72%
방직공업	51%	41.4%
식품공업	6.75	24.6%
기타공업	6.35	6.7%

자료출처 : 嚴中平,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1955, p.105.

료가 생산원가의 70%를 차지했다. 따라서 농업생산물은 공업원료로서 중요한 구실을 했고, 농민들의 구매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복이나 식품 등은 당시 중국 공업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물이었다.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부업생산도 농민들에게 주요한 부분이었다. 1920-30년대 부업생산은 시장생산이었으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포섭되는 과정에 있었다.

1930년대 농가에서 기본 생활용품을 시장구매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졌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농가생산품 가운데 상당부분의 가치가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농가는 사실상 시장교환을 위해 생산활동에 종사했다. 無錫의 경우 농촌부업으로 가장 중요했던 蠶桑業은 완전히 시장생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蠶桑業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고치판매는 농가경제의 평형에도 영향을 주어 시장가격에 의해 농가경제의 수지가 결정되었다. 蠶桑業 외에 농가 경제 요소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노동력도 家庭生産 영역 밖으로 대량으로 유출되어 노동으로 시장에서 교환물이 되었다.⁵⁰⁾

농촌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농촌에서 판매하는 농산품은 직접 소비자

50) 吳柏均, 앞의 논문, 『中國經濟史研究』, 1991. 3, p.67.

가 구매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중간상인이 구매 후 멀리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농민이 직접 공업생산품을 구입하는 수량이 증가하여 농촌 초급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농촌의 초급시장이었던 수많은 小城鎮은 農副產品 무역의 집산중심지였으며 도시공산품이 농촌에 침투하는 길목이 되었다. 이것은 城鄉關係의 강화와 국내 통일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⁵¹⁾

1920년 중국 농업경제에서 상품경제와 자연경제의 비율은 38:62였는데, 1936년에는 44:56으로 여전히 자연경제의 비중이 높았지만 상품경제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품경제 비중의 증가추세는 농촌의 자연경제가 붕괴되고 상품경제가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²⁾ 농산품 가운데 棉花·차·밀·油料작물과 蠶繭 등은 근대공업의 원료가 되어 상품시장이 계속 발전했고 경공업제품·방직제품도 점차 농촌에 침투해 들어갔다.⁵³⁾ 화북지방조차도 외국공산품이 편벽한 농촌에까지 들어갔으며 남녀의 일상용품은 대부분 수공업제품이 아닌 공업제품이었다⁵⁴⁾고 할 정도로 상품경제는 중국 전체에 보급되었다. 이것은 1930년 중국의 농촌 상품시장 구조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농촌의 일용품은 이미 대부분 자급하지 못하고 상인이 공급했다. 예를 들어 1934년 山東 鄒平縣 集市 상황 조사에서는 농민이 구매하는 물건 가운데 50리 이내에서 온 것은 주로 식량과 수공업 제품이었고, 50-100리 이내에서 온 것은 돛자리·양말·문구, 100-300리 사이에서 온 것은 도기·잎담배 및 濟南의 공업품, 300리 밖에서 온 것은 성냥·담배·洋紗·洋布 등의 기계제품과 수입품이었다. 50리 이내에서 온 것 가운데 80%가 농산품이었다. 300리 밖에서 온 것은

51) 陸仰淵·方慶秋 主編, 『民國社會經濟史』, 中國經濟出版社, 1992, p.407.

52) 徐新吾, 앞의 논문, 『中國經濟史研究』, 1988, 1, p.107.

53) 徐新吾, 앞의 논문, 『中國經濟史研究』, 1988, 1, p.102.

54) 田文彬, (崩壞中的河北小農), 『中國農村經濟論文集』, 1936, p.225(陸仰淵·方慶秋 主編, 『民國社會經濟史』, 中國經濟出版社, 1992, p.414에서 재인용).

44.8%가 기계제품이고 농산품은 36.9%에 불과했다.⁵⁵⁾ 이것은 화북의 예이기는 하지만 農村城鎮도 농촌의 한정된 범위의 거래에 국한된 폐쇄된 시장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농민의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공업생산물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남의 경우도 농민의 구매품이 단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공산품이 농촌에 까지 진출하여 구매력을 자극했다. 따라서 1930년대 강남의 농촌시장은 소상품 판매시장으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도시와 상호 교류하는 시장 형태를 갖추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는 이전의 개별적 고립적 관계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로 바뀌었다. 농촌에서 자연경제가 붕괴되고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쌀·고치·밀 등 농산물은 대부분 도시로 팔려나갔고, 많은 농촌 수공업 제품도 도시의 加工工業에 의존했다. 또 도시상공업 경제가 농촌으로 확대되어, 향촌의 소규모 이발관·양곡상·누에고치상은 모두 도시동업공회에 장악되어 있었다. 농촌의 수공업·소형공장 등은 도시 상공업과 밀접한 의존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시장의 파동은 쉽게 농촌에 영향을 미쳤다. 강남지방은 上海·無錫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여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기 쉬웠고, 지주계급의 다수는 소작료 수익으로 상공업에 종사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상공업과 문화사업이 비교적 발달하여 적지 않은 사람이 小學教員 등 자유직업에 종사했다. 농민 가운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서 노동자와 농민도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⁵⁶⁾

강남 농촌이 상품경제에 깊숙이 포함됨으로써 경제공황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중국 농산물의 고치 등 일부가 수출되었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원료로 소비되었고, 중국내에 진출한 제국주의 기업은 수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내 판매를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

55) 『大公報』(天津) 1934. 7. 19.

56) 華東軍政委員會, 『江蘇省農村調查』, 1952, p.131.

문에 공황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요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 가격이 국제시세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제공황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중국 농산물 가격도 동반폭락하여 농촌의 구매력이 격감했다. 당시 소농민들은 대부분 농업에서의 손해를 농촌부업에서 만회했는데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고치와 면화가격이 폭락하고 수요가 격감했다. 따라서 강남지방의 주요 부업인 양잠과 면화재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것이 농촌쇠퇴의 한 원인이 되었다. 농촌의 쇠퇴는 곧바로 농민의 소작료에 의존하고 있던 지주와 국내시장의 구매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중국의 주요 공업인 경공업에 영향을 미쳐 1930년대 초 중국경제 전체가 불황의 늪에 빠졌다. 경제공황은 2가지 측면에서 강남 농촌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강남 농촌이 상품경제에 의해 지배되면서 경제공황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었고, 둘째는 상품경제의 확대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오던 전통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경제공황을 계기로 농촌의 전통부업은 대부분 몰락하고 산업자본·상업자본에 종속된 형태로 농촌에서 부업이 재편되었다. 즉 공황은 근대 이후 계속되어 온 강남 농촌의 자연경제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농촌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맺음 말

1930년대 강남 농촌은 新舊 사회의 교체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촌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었다. 강남 농촌의 변화는 시기에 따라 완급이 있었지만 별다른 저항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明清代 이래 강남지방이 상품경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고 대외접촉의 기회가 많

아 자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편전쟁 이후 대외무역의 증가, 시장의 발전으로 촉발된 상품화의 진전은 상품의 유통구조, 상품유통의 품종과 경영방식 등 상공업구조를 변화시켜 상품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상품경제의 발전은 1920년대 이후 농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농산물의 상품화와 농가 생산자료의 상품화가 진전되었다. 농촌의 변화는 강남농촌에서 각 농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났지만 강남의 농업생산은 기본적으로 시장생산이었고, 농가에서 필요한 소비자료를 대부분 시장에서 구매하여 시장과 상호 교류하는 형태를 취했다.

상품경제의 발전은 강남 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켰다. 농촌이 상품시장에 포섭된 결과 영향을 받은 경제공황을 계기로 농촌의 전통부업은 대부분 몰락하고 산업자본·상업자본에 종속된 형태로 농촌에서 부업이 재편되었다. 즉 공황은 강남 농촌의 자연경제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농촌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세기 들어서 강남에는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혼합되어 순수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양자의 혼합에서 근대적 요소가 강화되어 갔다.⁵⁷⁾

결국 강남 농촌 상품경제의 발전은 농촌 경제구조를 변화시켜 운수·상업 등 非農産業의 비중이 늘어나 농촌의 단일한 생산구조가 다양한 생산 구조로 변화되었다.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는 농촌경제 요소를 새롭게 배치하여 자본의 非農産業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고, 농촌노동력의 城鎮 비농산업 부문에 대한 취업이 증가함으로써 농촌노동력의 취업구조가 고도화되었다.⁵⁸⁾ 따라서 1920-30년대 강남의 농촌시장은 자본주의 유통법칙의 지배를 받았고 농촌경제는 자급자족적인 봉건경제 양식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시장법칙의 영향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57) 馬敏·朱英, 앞의 책, p.22.

58) 吳柏均, 앞의 논문, 『中國經濟史研究』, 1991. 3, p.68.